



7면

"인구대책, 시민이 나서야"
익산시, 고강도 대책 제시

전주매일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음 8월 13일) 제263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올 추석명절은 집에서 쉬어요”

도 '특별방역기간 핵심 3·3 대책' 적극 동참 호소 거리두기 솔선수범·다중밀집장소 소독 강화 강조

전북도는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추석특별방역 기간 핵심 3·3 대책을 밝히며 도민의 실천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추석은 '집에서 쉬기'를 원칙으로 28일부터 추석연휴 전후 2주간(9월 28~10월 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강화를 시작했다.

특히 도를 방문하는 모든이들은 공동체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 핵심 3 대책 준수'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안전한 추석 방역 핵심 3 대책은 ▲ 마스크 착용 준칙에 따라 세대를 달리 하는 가족간에는 집안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가능한 집안에서는 수건 등 개인용품은 따로 사용하는 등 집안에서 따뜻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개인이 솔선수범 ▲ 연휴 기간 중 부득이 관공지 등 내들이 시에는 실내보다는 실외 장소를 선택하고 방문하기 ▲ 내들이 식사시에는 거리두기 등 밀집 피하기(도시락 등 권고)이다.

이는 코로나19 가 환기가 안되는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1m이내의 밀접 접촉밀폐, 밀집, 밀접)시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특성을 감안한 대책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추석을 위한 행정의 추석 방역 핵심 3 대책은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밀집장소 소독, 방역 강화 ▲고위험시설(집합금지) 및 중위험시설, 유명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등 방역수칙 현장 점검 강화 ▲의심(확진)환자 발생시 진단검사-격리-치료 신속한 조치이다.

특히 도는 안전한 추석보내기 도민 3대 실천과제는 추석기간중 도외로 부득이 이동 방문하시는 도민도 지켜야 하는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풍성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또한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도, 시군 행정체계와 마을이장단, 보건지소

등 방역이동점검단 등을 통해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추석명절은 코로나19 수도권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의 전국적인 이동이라는 위험 요소로 공동체 안전차원에서 그 어느때보다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민과 행정이 함께 3, 3대책에 적극적 참여와 확실한 이행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함께 안전한 추석을 보내지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내가 만들었어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28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도담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송편을 빚으며 즐기고 있다.

전북도, 추석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전북도가 추석 연휴기간 각종 사건 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 등 상황유지를 위해 도청 내에 의료방역 대책상황반 등 7개반(180명)으로 구성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여전히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지역 간 이동, 모임 증가 등으로 감염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등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비상진료 체계를 위해 의료방역 대책상황반을 운영, 방역 누수 차단에 주력한다. 또한 기상 특성분석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재해대책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추석 물가동향과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위해 물가대책상황반도 운영한다. 더

불어 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도내 전소방관서에서 추석 연휴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

/유호상 기자

김승환 교육감 한가위 인사

김승환 교육감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한가위 인사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28일 '추석 명절을 맞아 드리는 글'을 통해 가장 먼저 도민들의 건강과 평안을 물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뜻밖의 재난이 우리를 덮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미안할 따름이지만 국민 모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보탠 덕분에 이 재난을 뚫뚫, 느리지만 꾸준한 결심으로 견뎌내는 중”이라고 위로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도 많으나 학교는 언제나 넓고 큰 품을 열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면서 “선생님들 역시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과 애정으로 아이들을 두 팔 벌려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올해 한가위가 어느 때와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 올 이들을 기다릴 것이다”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추석 연휴로 10월 5일까지 신문 쉽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용역 결과 “적절”

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가장 필요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설계가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시는 28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책임연구원 이석원 교수)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자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와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소득과 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 결과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58.5%가, ‘생활수준 하락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8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타격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응답비율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24.2%에서 지급 이후 14.8%로 9.4% 포인트 줄어들었다.

‘재난기본소득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98.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자료 분석 결과, 지역 음식점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 변



전주시는 28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화율은 2~3월에 급감했다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4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거꾸로 3월에 급격히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변화율은 4~6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난기본소득을 ‘필요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방식 설계가 바람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비율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가구소득 200만~300만원, 개인소득 156만~255만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이하 경제활동인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은 설계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사후 설문조사 결과 슈퍼마켓, 식당, 병원, 의류, 주유소 등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이 컸던 곳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많이 사용된 데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유동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이 항구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은 힘든 만큼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돕겠다며 4만여 명에 1인당 52만7,000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98.7%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환수 조치됐다.

/김윤상 기자

muju 무주군 축! 전주매일 창간

LohasZone-Muju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해발 400~800m, 연 평균 11.3°C, 한 여름 평균 기온 24°C의 보물창고 남부지역 유일의 고랭지 무주가 키웠습니다! 무주사람들이 정성으로 일했습니다!”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www.mj1614.com

www.mj1614.com 063)322-0278 / 320-2770